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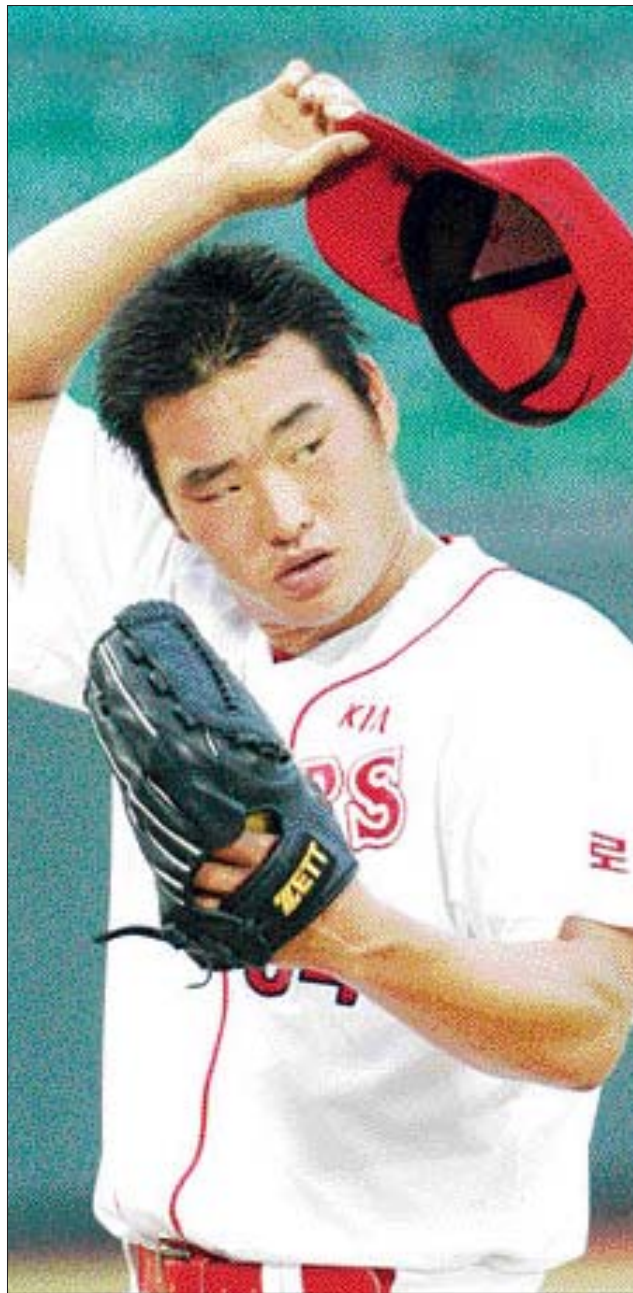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김진우 선수생명 위기

KIA, KBO에 임의탈퇴 공시 요청



호랑이 군단의 '토종 에이스' 김진우(24·KIA·사진)가 유니폼을 벗을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 1년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고, 이후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KIA는 1일 "2군 선수단에서 무단이탈한 뒤 훈련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김진우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해 줄 것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KIA는 "그동안 수차례 팀을 이탈한 김진우를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군서 무단 이탈...복귀 안해
공시땀 1년간 선수생활 못해
사실상 '강제 은퇴' 다름없어**

KBO가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면 그 시점부터 김진우는 1년간 선수생활을 할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면 KIA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1년동안 야구를 못하게 될 경우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따라서 임의탈퇴는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는 수순이나 다름없다. 프로 6년차 김진우는 지난 11월부터 2군 공식 훈련에 이유없이 불참한 채 구단과 연락을 끊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태. 2002년 역대 신인 최고 계약금인 7억원을 받고 입단한 김진우는 데뷔 첫 해 강속구와 나차 큰 커브를 앞세워 12승(11패)을 올리며 탈삼진왕(177개)을 차지해 차세대 에이스로 꼽혔다. 2003년 11승, 2004년 7승, 2005년 6승, 지난 해 10승을 거뒀던 김진우는 올 해에는 심각한 제구력 난조에 발목을 잡혀 1군 경기에 5차례 등판해 1승2패, 평균자책점 8.35로 부진했다. 프로 7년 간 통산 성적은 47승(34패), 평균 자책점 3.66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KIA, 왜 임의탈퇴 요청했나

잡은 이탈 등 자기관리 '엉망' "더 이상 봐줄수 없다" 초강수

제구력 난조에 정신력도 약해져

'고교 초특급 에이스, 고졸선수 최고액 7억원 계약, 데뷔 첫 해 12승, 제 2의 선동열...' '현재 투수'에서 '버려진 투수'로 전락한 김진우(24·KIA)의 이름앞에 붙여졌던 화려한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김진우는 지난달 31일 KIA 구단의 임의탈퇴 신청으로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KIA는 그동안 잡은 이탈로 팀 분위기를 왜해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진우를 버리는 초강수를 썼다. 어쩌다가 프로 데뷔 6년만에 이 지경이 됐을까.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원인 모를 제구력 난조에 있다. 일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몸을 만든 김진우는 올 시즌 시범경기 이전 만에도 개막전 선발로 뽑혔다. 그런데 막상 시범경기서 투구를 열어보니 작구 최고 구속은 140km대 초반을 맴돌았고, 변화구의 컨트롤도 안됐다. 김진우는 결국 시즌을 2군에서 시작했다. 지난 6월 5일 1군에 복귀했지만 선발로 나선 5경기에서 1승2패, 평균 자책점 8.35를 거뒀다. 더 큰 문제는 18.1이닝을 던지는 동안 무려 29개의 사사구를 남발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난달 8일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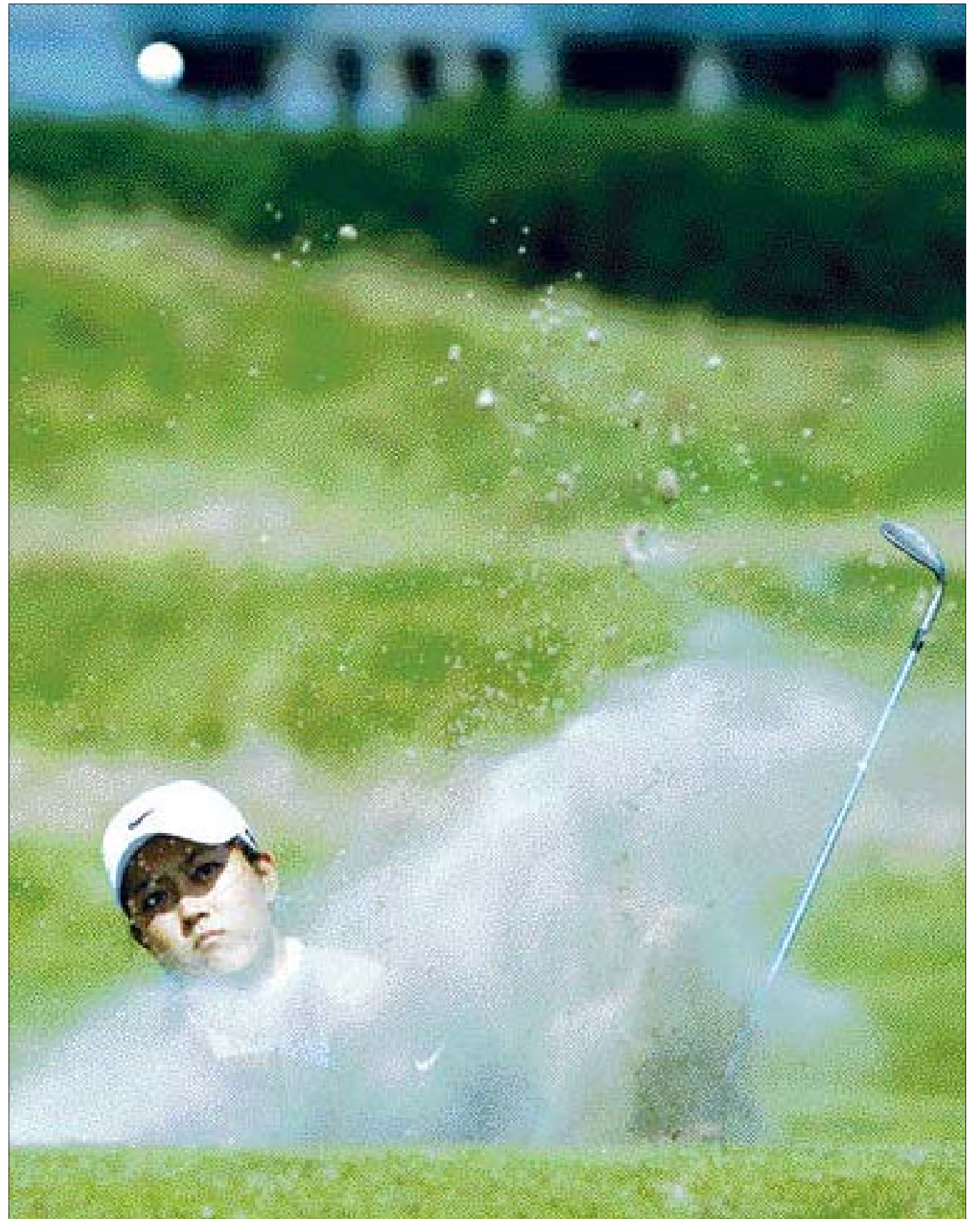
전담코치 등 특별관리도 효과없어

KIA 구단은 그동안 의심해 오던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본보 6월 25일 22면)을 부진의 원인으로 보고 심리적 치료를 위해 마지막 조처를 취했지만, 김진우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1달여가 다 되도록 팀을 이탈해 잡적했다.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은 어느 순간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투수에게 붙여진 서글픈 애칭이다. 원인은 승부의 압박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다. 치료방법은 없다. 물론 이같은 원인모를 제구력 난조에 김진우의 나약하고 불성실한 정신력도 원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1년말 당시 역대 신인 최고액인 계약금 7억 원을 받고 KIA에 입단한 김진우는 프로 데뷔 첫해인 2002년 12승과 고졸 신인으로는 첫 탈삼진왕(188개)에 오르며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다. 그러나 김진우는 입단 2년째부터는 야구보다는 음주폭력 등

'천재 투수'서 '버려진 투수'로

사생활 문제로 입살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그해 4월 시즌 개막 후 광주 시내 모 술집에서 새벽에 패싸움을 벌여 상대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고, 그 후 한달여 만에 또 다시 폭행사건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구단은 김진우에 대해 전담 코치를 배치하는 등 특별관리팀을 편성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매년 이탈과 잡적, 그리고 복귀를 거듭했다. 야구가 아닌 술잔과 씨름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레도 KIA 구단은 김진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2005년 말 결혼과 함께 달라질 것으로 믿었으나, 이마저도 기대에 그쳤다. 김진우는 이후 자기관리 실패로 매년 어깨와 팔꿈치 등에 통증이 오는 심각한 부상에 시달렸다. 지난해 4월 말에도 갑자기 어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염이 들어 2달동안 전역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KIA 구단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는 줄 만큼 줬다"면서 프로선수인 만큼 야구인생의 연장 여부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부진 탈출 벙커 샷

위성기가 1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여자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연습라운드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선한 기아, SK에 역전패

에이스 윤석민 투입 불구 6-8 패

기아가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위 SK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패했다. 특히 기아는 필승 카드로 사출된 등판했던 에이스 윤석민까지 투입했으나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김진우의 임의 탈퇴 공시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앞으로 마운드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 SK는 1회 이닝 2군에서 올라 온 김재현의 우전안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그러나 KIA는 2회초 무사 1, 2루에서 SK 3루수 최정의 결정적인 실책으로 한꺼번에 2점을 뽑아 2-1로 뒤집었고 김중국이 우전 안타, 최희섭은 2루전 2루타를 날려 5-1로 달아났다. KIA는 3회초에도 이용규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보태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3회말 최정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한 SK는 5회말 윤석민을 상대로 정경배와 정상호가 각각 2타점 2루타를 날려 단숨에 6-6 동점을 만들었다. 6회에는 2사 2루에서 최정의 좌전안타로 전세를 뒤집은 SK는 정경배의 2루타까지 이어져 8-6으로 앞섰다. 윤석민은 3이닝동안 7안타를 맞고 6실점해 패전의 땅에 올랐다. 한편 두산은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07프로야구 한화와의 경기에서 선발 맷 팬들의 호투속에 최준석이 결승홈런을 터뜨리는 등 팀 타선이 적시에 폭발해 6-0으로 승리했다.

전날 다니엘 리오스가 완봉승을 거둔데 이어 이를 연속 한화 타선을 영점으로 묶은 2위 두산은 최근 4연패 뒤에 2연승으로 분위기를 추스리며 3.45위 팀인 LG와 한화,삼성에 2게임차로 앞서게 됐다. 랜들은 6%이닝동안 3안타, 3볼넷, 무실점으로 막아 최근 3연패에서 벗어나며 리오스와 박명환에 이어 올시즌 세번째로 전 구단 상대 승리투수가 됐다. 반면 한화는 4연패의 늪에 빠졌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9회말 김재열의 끝내기 2루타에 힘입어 LG를 3-2로 꺾고 전날 9회 역전패를 설득했다. 현대는 롯데와의 경기에서 4-2로 승리하고 4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풍운아' 고종수 돌아왔다

2년1개월만에 FA컵 출전

'그라운드'의 풍운아' 고종수(29·대전)가 돌아왔다. 다시 그라운드를 밟기까지 2년하고도 한 달이량 시간이 걸렸다.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16강 대전 시티즌-부산 아이파크전이 열린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 대전이 0-2로 끌려가던 후반 11분, 고종수가 미드필드 조재민 대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홈 팬의 박수가 쏟아졌다. 고종수가 공식 경기에 나선 것은 전남 소속이던 2005년 7월 10일 정규리그 수원전 이후 25개월 만이다. 고종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 닭살이 돋았다. 미우나 고우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팬을 위해 죽을 힘 다해 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속팀 없이 1년여를 지내다 올해 대전에 등지를 튼 고종수는 혹독한 훈련으로 부활을 준비해 왔지만 복귀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옛 스승 김호 감독이 부임하며 복귀식을 치른 고종수는 투입되자마자 후반 13분 상대 미드필드 왼쪽에서 우승제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찰라 주고, 23분에는 원발 프리킥을 감아 올리는 등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여줬다. 고종수는 "빠른 시일 내 몸을 끌어올려 올해 안에 풀타임을 뛰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수들과 팔팔 뭉쳐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이형택 16강 진출

ATP 레그 메이슨클래식

이형택(세계랭킹 38위·삼성증권·사진)이 총상금 60만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레그 메이슨클래식에서 단식 16강에 올랐다. 5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이형택은 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리엄 피츠제럴드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2회전에서 러시아의 이고르 쿠니친(95위)에게 2시간7분 만에 2-1(6-7(7-9) 3-6 1-6)로 역전승을 거두고 3회전에 안착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오픈 32강전에서 쿠니친을 딱 한 번 만나 2-0으로 이겼던 이형택은 이날은 모처럼 폭발적인 서브를 앞세워 뒤집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